

## 탄핵·특검·국조 朴, 운명의 1주일

野, 탄핵안 29일까지 마련  
특검 후보 29일 추천·2일 임명  
국조특위 30일 1차 기관보고

이번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5·6면〉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이 이번 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야권은 늦어도 29일까지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한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오는 30일 야권은 회동을 갖고 탄핵 소추안 표결 일정을 결정한다.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본회의 처리 등의 과정이 담긴 로드맵이 유력하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가능성은 높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이다 여당 의원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적게는 40명, 많게는 6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 원내수석부대표 등 채널을 통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한 뒤, 두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 2명을 29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야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특검 1명을 임명해야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문제를 고리로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오는 30일 국조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특히 다음달 6일과 7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국정 농단 혐의자들과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청와대가 2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데다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 요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역사 농단...국정 역사교과서 오늘 공개

편향 서술 메가톤급 파장 예고  
5·18왜곡대책위 “철회” 성명

교육부가 28일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한다.

지역 교육·역사학계는 공개되는대로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교과서 편향 서술·오류 여부를 면밀히 분석,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는 등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씨의 최측근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지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국정교과서 관련성을 감안, 국정교과서 편향 서술 여부에 따라 메가톤급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검토본의 취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집필진 47명의 명단 역시 이날 공개된다.

교육부가 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정교과서를 공개키로 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역사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역사교사 출신인 정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도 지난 24일 국정화 철회요구 성명서를 낸 데 이어 국정화 교과서 발표 이후 5·18 광주민중항쟁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부분을 분석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끝내 이기리라”...190만 ‘촛불 항쟁’



금남로 촛불집회 “박근혜 체포” 제5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가 열린 지난 26일 광주 금남로에 운집한 7만여명의 시민들이 ‘우리가 주인이다’, ‘박근혜 체포’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있다.

비바람 추위 속 광주 7만·전남 1만 8000천개 타올라

서울 광화문 일대 150만 촛불...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은 눈보라와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올랐다.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다섯번째 주말집회인 지난 26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7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신안 흑산도와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남지역 18개 시군에선 1만 8000개의 촛불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서울 150만명, 광주·부산·대구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190만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금남로에서 개최한 ‘제5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촛불대회’는 반짝 추위에 비바람까지 몰아쳤으나 집회 시작 1시간이 지나지 않아 5만명까지 불어났고 ‘촛불 대행진’ 직전에는 7만명(경찰 추산 1만3000명)까지 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오후 7시30분께 진행된 대형 현수막 전달 퍼포먼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가로 8m 세로 30m 크기의 흰색 천 2개에 ‘우리가 주인이다’, ‘박근혜 체포’라고 적힌 현수막이 5·18 민주광장 앞 무대에서부터 금남공원까지 시민들 손을 거쳐 500m를 건넌지자 시민들은 열광했다.

특히 80년 5월 자식을 잃은 5·18 유족들이 무대에 올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부르던 순간에는 금남로 일대가 커다란 슬픔에 잠겼다. 조용히 노래를 따라부르던 시민들부터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는 시민들까지 한마음으로 ‘새 날’을 염원했다.

시민들의 행렬은 돌로 나뉘어 광주전변 ~ 금남공원 방향과 대인시장 ~ 금남공원을 지나 금남로로 돌아오는 코스를 행진

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휴대전화를 깜빡이며 호응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행사가 열렸다. 특히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 로터리 등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3개 경로로 사전행진이 진행돼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포위하듯 에워싸는 ‘청와대 인간띠 잇기’가 처음 실현됐다. 서쪽 날개 끝인 신교동로터리는 청와대에서 약 200m, 동쪽 끝인 세움아트스페이스는 약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경찰은 이들 경로에서 광화문 앞 육곡로 북쪽에 해당하는 구간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일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서울 150만명, 전국적으로는 190만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고 밝혔다. 통의로터리와 창성동 별관에서는 자정 넘도록 양측 간 대치가 이어졌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집회 시간대 통제된 사직로·육곡로·세종대로·삼청로 등 구간 통행은 자정 이후 정상화했다.

한편 서울 도심 집회를 위해 상경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모는 화물차량 130여대는 지난 25일 오후 7시10분께 양재IC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어 36명이 연행됐으며, 농민들은 차량을 주차한 뒤 광화문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총학 선거 ‘후폭풍’ ▶7면

영호남 청년 교류 ‘달빛 소나기’ ▶18면



KIA, 최형우 보상선수는 누구? ▶20면

1968년 창립이래 광주광역시와 함께합니다

## 광주시 제 1 금고지기 광주은행 선정

지역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광주은행이 시금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의 은행**, 더불어 행복한 **광주시민의 은행**  
여러분 곁에 남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객을위한 행복금융파트너

광주은행